

나는 담배가 정말 싫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사람이 담배를 피면 갑자기 숨이 막혀서 곤란해져 버린다. 몇 일 전인가 라디오에서 이제 곧 학교 건물 내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다. 담배를 매우 싫어하는 나는 정말 기뻐했다. 더욱더 전부터 나는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만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복도 만이 아니라 강의실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일본도 달리 한국의 여자들은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워 그 사람 뒤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담배 연기와 냄새로 정말 괴로웠던 적이 몇번이나 있었다. 내가 담배 때문에 괴로웠던 일은 그밖에도 많이 있다. 영화관과 축구장에서 담배 연기와 냄새를 피해 몇번이고 자리를 옮겼던 때는 정말로 견딜수 없었다. 그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할수 없는 내가 미웠었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원망할 뿐이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금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 보고 싶었다. 텔레비전 등에서 의사가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걸 누구든지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나는 2년전에 일본에 갔던 적이 있는데 찻집에서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차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 찻집 안은 담배 연기로 꽉 차 있었다. 아이에게 담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아줌마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담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